

공무원 임용 과정의 국어 시험과 국어 능력

이형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1. 들어가며

공무원의 업무는 일상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정책 수립을 위해 협의를 하거나 기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상급 기관, 타 기관과의 협조, 민원 업무 처리는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을 할 때에도 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9급, 7급, 5급의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은 다르지만 공무원은 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어 능력이 미약하면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음의 예(이형래, 2006:4~5)를 살펴보자.

5급 공무원인 사무관 ○○씨는 혁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보고서를 자주 참고하였다. 그런데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3차례에 걸쳐 수정 지시를 받았다. 보고서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보고서의 서론 부분에 속하는 목적이나 방침 등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서

검토를 요청한다.

학교 행정실 직원 ○○씨는 최근 교원 복지 관련 연수를 상위 기관에서 받고 와서 걱정이다. 교직원들에게 전해야 할 정보가 많은데 어떻게 연수를 하나 고민이다. 결국 연수를 받을 때 나눠준 자료를 학교 이름만 넣고 그대로 다시 인쇄하여 나눠준 뒤 참고하라고 하였다. ○○씨는 자료를 요약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7급 공무원인 ○○씨는 과장이 요구한 국회 제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방 행정 기관에 자료 요청하기 위해 공문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공문 작성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요구 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야 하는데 공문을 여러 번 다시 작성하면서 어떤 어휘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대부분 문서 작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쓰기 능력은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전문가를 초빙, 글쓰기 교육을 하였으며 ‘보고서 잘 쓰기 동아리’를 만들어 회원들이 보고서 작성 등 업무와 관련한 글쓰기 연습을 하기도 하였다(이형래, 2006:5). 교육행정 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에게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말하기나 또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자료를 읽고 요약하는 이해 기능이 필요하다. 공무원에게는 직급을 막론하고 국어 능력이 요구되며, 공무원의 국어 능력은 해당 부서의 업무 효율성과 직결된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은 업무 수행에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자료는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이다. 국어 시험은 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므로 공무원 국어 채용 시험을 분석하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추론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문서를 다루고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어 능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국어 시험 분석을 통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공무원의 인재상과 국어 능력

2.1. 공무원의 인재상

〈표1〉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에게 요구되는 인재상

행정부처	공무원 인재상	주요 업무	대상
국무총리실	- 거시적 안목과 현실적 감각을 동시에 보유해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 책임을 다하고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인 자세로 발전된 대안을 도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	- 국정 과제 관리 점검 사회 위험 및 갈등 관리 규제 제도 관리 - 대국회·정당 업무 관리 - 국무총리의 국정 활동 홍보	9~5급
방송통신위원회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고 공무원이라는 조직 사회에서 직원 간의 화합을 중요시하며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 방송 통신 융합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활성화 - 통신 사업자 인허가 지상파·유선·채널 사용 관련 인허가 - 전파·방송 기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주파수 할당 - 방송 통신망 구축·운영 관련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9~5급

		•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국가 보훈처	• 능동적·창의적으로 업무를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지닌 사람 • 대내외적으로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 능력과 추진력이 탁월한 사람	• 독립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각종 보상 지원 등 보훈 사업 • 참전 유공자·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 사업 • 계대군인·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특수 임무 수행자의 지원 • 보훈 선양을 통한 나라 사랑 정신 계승 및 발전	9~5급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를 위해 정부 각 부처를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하여 연수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이 자료에는 신규 임용자에게 바라는 공무원의 인재상이 제시되어 있다. 몇몇 부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인재상과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다음 몇 가지 자질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안 제시 능력
- 진취적 사고
- 창의적 사고
- 지속적 자기 계발 능력
- 능동적 업무 수행 능력
- 협상 능력

이러한 자질이 일부 정부 부처의 인재상을 근거로 추출한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

의 자질은 ‘진취적, 창의적, 능동적 업무 수행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능력과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2.2. 공무원의 업무

근무 부처와 담당 업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9, 7, 5급 공무원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 계획서 작성하기
- 결재받기
- 업무 협조하기
- 문서 다루기
- 업무 보고하기
- 업무 협의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민원 처리하기
- 출장 업무 수행하기
- 보고서 작성하기

이들 업무를 보면 공무원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하지만 그 과정에는 고차적인 사고 활동이 동원됨을 알 수 있다. 5급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검색한다. 이때에는 ‘내용 확인하기’, ‘추론하기’와 같은 읽기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점을 맞추는 기능’, ‘정보 수집 기능’, ‘기억 기능’, ‘조직 기능’, ‘분석 기능’, ‘생성 기능’, ‘통합 기능’, ‘평가 기능’ 등과 같은 사고 기능을 동원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즉 공무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 기능

을 동원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사고 기능은 곧 국어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 또는 잡지의 기사나 보도 자료를 검색하고, 중요한 자료를 스크랩하는 행위도 국어 활동으로서의 읽기 활동이면서 곧 ‘정보 수집하기’, ‘생성하기’와 같은 사고 기능이다.

5급 공무원의 업무상 특징을 보면 ‘보고서 작성하기’가 두드러진다. 7, 9급 공무원과는 달리 장기간의 계획으로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기획하고 작성한다.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한편으로는 국어 능력과 관련 있는 쓰기 활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조직하고 분석하고 생성하며 통합하는 사고 활동인 것이다.

5급 공무원은 하급 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중요한 업무를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지시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전화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 말하기와 듣기 기능이 사용된다. 7, 9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관련 기관 출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들의 출장 업무는 9급 공무원의 듣기·말하기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 9급 공무원들이 사실적 정보의 수집과 파악에 초점을 두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면, 5급 공무원들의 듣기·말하기는 정책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급 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이나 정책 수정 등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평가하기’와 같은 사고 기능이 듣기, 말하기 활동에 동원됨을 알 수 있다. 즉 공무원의 업무는 언어 활동과 사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2.3. 공무원의 업무와 국어 능력

공무원의 업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어기본법

(2005)에는 국어 능력을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무원에게 필요한 국어 능력은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과 관련 있는 국어 능력은 한편으로는 사고력과도 관계가 있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이 곧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국어의 이해와 표현 활동은 정신 작용이므로 사고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국어 능력은 언어적 표현과 이해의 문제이며, 이것은 텍스트로 표현하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동원되는 사고력인 것이다(이천희, 2005:25). 그런데 이러한 사고력을 국어 능력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바레트(1976)가 구분한 읽기 기능인 ‘축어적 재인 및 회상’, ‘재조직’, ‘추론’, ‘평가’, ‘감상’ 등은 마르자노 등(2003)이 제안한 사고 기능인 ‘초점 기능’, ‘정보 수집 기능’, ‘기억 기능’, ‘조직 기능’, ‘분석 기능’, ‘생성 기능’, ‘통합 기능’, ‘평가 기능’과도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대안 생성 능력 등을 사고 능력으로 구분하지만 이들 능력도 국어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사고 능력은 언어 사용을 통해 신장되므로 국어 능력 평가는 곧 사고 능력 평가인 셈이다.

공무원이 회의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듣기와 말하기 행위도 국어 능력과 사고력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문서를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거나 자료를 분석하는 행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도 국어 능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의 인재상이 ‘창의적인 인재’임을 고려해볼 때,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 요구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은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이러한 고차적인 사고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국어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공무원 채용 국어 능력 평가가

될 수 있다.

국어 능력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중의 하나는 지식관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사용에도 지식이 동원된다. 문법 지식은 물론이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지식도 동원되며 한자에 대한 지식도 동원된다. 그리고 언어 행위의 자료이자 대상이 되는 텍스트나 담화에 대한 지식,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국어 능력과 연관된 지식에 대한 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어 능력과 관련 있는 지식의 범주를 선으로 긋기엔 어려움이 있다. 읽기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경우, 읽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지식 분야에 대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국어 능력 평가는 아니다. 그러한 평가는 전문 영역의 지식 평가와 다를 바 없다. 국어 능력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구성할 수 있는 지식 활용 능력이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주로 광범위한 문서를 다룰 때 발휘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제반 문서에 대한 이해 및 표현 능력을 국어 능력과 관련 있는 지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서 국어 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제반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과 관련 있는 지식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

3.1.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20문항으로, 국어 지식 중심의 평가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 공무원의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해 국어 지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국어 능력의 중핵적 요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09년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국어 시험 문항 분석을 통해 어떠한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3.1.1. 문법 평가

9급 공무원의 국어 시험 문제에서 국어 지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전체 문항이 20문항인데 국어 지식 문항은 무려 11문항이다. 이는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이 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국어의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문법 영역의 평가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2009년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맞춤법’ 평가 문항이 1문항, ‘표기법’ 문항이 2문항, ‘국어 발음’ 문항이 2문항, ‘국어 역사’ 문항이 1문항, ‘문장 성분’ 문항이 1문항, ‘표준어’ 문항이 1문항, ‘관용 표현’ 문항이 1문항, ‘한국어의 일반적 특성’ 문항이 1문항, ‘품사’ 문항이 1문항 등 총 11문항이었다.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의 50% 이상이 문법 능력 평가 문항인 셈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법 지식 문항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국어 지식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의 자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류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현대 국어의 자음(子音)은 파열음(破裂音)/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ㄴ, ㅋ /, 파찰음(破擦音)/ ㅈ, ㅉ, ㅊ, /, 마찰음(摩擦音)/ㅅ, ㅆ, ㅎ/, 유음(流音)/ㄹ/, 비음(鼻音)/ㅁ, ㄴ, ㅇ/ 등의 열아홉이다.

① 소리 내는 위치

② 소리 내는 방법

③ 혀의 위치

④ 입술의 모양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이 공무원이 될 수험자의 국어 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위와 같은 문항은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어 시험을 통해 평가하려고 하는 국어 능력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될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즉, 현대 국어의 자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매년마다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3.1.2. 한자 이해 능력 평가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에는 한자 이해 능력 평가 문항이 있다. 이는 한자에 대한 이해 능력을 국어 능력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이 문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한자어 사용 능력이 요구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국민에게 안내할 다양한 문서를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무원이 될 수험자에게 한자보다는 순우리말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정부의 문서에 대한 이해 및 생성 능력을 위해 한자 능력이 요구된다

면 문서 이해 및 문서 생산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한자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제시한 문항은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과 맥락이 닿는 한자 성어는?

(중략)

‘맹자’에 “바다를 본 자에게는 바다 이외의 물은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고 했는데, 성현의 역량(力量)을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 ① 浩然之氣 ② 勞心焦思 ③ 乾坤一擲 ④ 焦眉之急

‘한자에 대한 이해 능력 평가’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 능력 평가’는 다르다. 한자어는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국어 능력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한자 그 자체에 대한 이해 능력은 국어 능력보다는 한문 사용 능력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문서에 한자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한자어에 대한 이해 능력 평가는 필요하지만 한글 표기가 아닌 한자를 그대로 표기하여 한자 이해 능력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9급 공무원은 공문서 읽기, 기안 읽기 및 작성하기, 법률 문서 읽기, 주민 안내문 작성하기 및 읽기 등의 활동을 하는데 한자 이해 능력보다는 독자인 주민이나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명료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문서에 사용된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자의 음이나 한자의 표기를 묻는 문항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지 않다.

3.1.3. 글의 서술 방식과 기법, 관용적 표현 이해 평가

공무원 국어 시험을 보면,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수가 국어 지식이나 문법 지식 평가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국어 능력에서 읽기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항 수는 적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수도 매우 적다. 아래의 문항은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문항인데, 읽기 능력 문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쓰기 지식과 관련 있는 문항이다.

아래 문항은 글의 서술 방식 중 묘사하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쓰기 지식 능력 평가 문항인데, 이러한 쓰기 지식 평가 문항이 공무원이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전달의 글을 작성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공문서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가가 끝난 비탈 저 아래에 가로질러 흐르는 개천물이 눈이 부시게 빛나고, 그 제방을 따라 개나리가 셋노랗다. 개천 건너로 질펀하게 펼쳐져 있는 들판, 양털같이 부드러운 마른 풀에 덮여 있는 그 들 한복판에 괴물 모양 기다랗게 누워있는 회색 건물. 지붕 위로 굴뚝이 높다랗게 솟아 있고, 굴뚝 끝에서 노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햇살에 비껴서 타오르는 불길 모양 너울거리곤 하는 연기는 마치 마술을 부르듯 소리 없이 사방으로 번져 건물 전체를 뒤덮고, 점점 더 부풀어, 들을 매우며 제방의 개나리와 엉기고 말았다.

- ①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밝히고 있다.
- ②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를 뒤바꾸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사물을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고 있다.

3.1.4. 읽기 능력 평가

공무원에게 문서 읽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에서 읽기 능력 평가 문항이 다수 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항 수는 적다. 글을 읽고 적절한 제목을 파악하는 문제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나이를 추론하는 문항, ‘은유’에 대한 이해와 글의 서술 기법과 관련 있는 문항이 전부다.

공무원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요약하는 능력,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 정보에 대한 평가 능력 등 다양한 읽기 능력이 요구되지만 그러한 문항은 없다. 읽기 능력 평가 측면에서 보면,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읽기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3.1.5. 문학 감상 능력

공무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양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에 문학 감상 능력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아래의 문항은 중·고등학교 국어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의 업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학 영역의 평가 문항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다음 시의 중심 소재가 된 객관적 사물은?

내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
즈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기어 심어 댔더니
동지 선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시늉하며 비끼어 가네.

① 바람

② 초승달

③ 샛별

④ 소나무

2009년도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에는 황동규 시인의 ‘풍장 1’을 제시한 뒤, 시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작가의 세계관을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9급 공무원이 국민을 고객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양이 필요하겠지만 문학 감상 능력을 공무원의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업무는 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국어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정보를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3.2. 7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은 20문항으로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과 문항 수가 동일하며 그 유형도 유사하다. 다만 한자와 한문 이해 능력 평가 비중이 9급 국어 시험에 비해 크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글의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와 같은 읽기 능력 평가 문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전 문학과 국어 지식 문항이 다수이다.

3.2.1. 한문 이해 능력 평가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국어 시험의 명칭은 ‘국어(한문 포함)’이다. 이는 국어 시험을 통해 한문 능력까지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급 국어 시험에는 한문 능력 평가 문항이 다수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자 및 한문 이해 능력 평가 문항을 통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옳은 것은?

兩人對酌山花開
一盃一盃()一盃
我醉欲眠卿且去
明朝有意抱琴來

이는 이백이 지은 시의 일부인데, 한시에서 어조사의 기능을 하는 한자를 찾는 문항이다. 한자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공무를 수행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국어 시험 문항에 한문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말을 보다 쉽게 사용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우리말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 순서다.

3.2.2. 문법 지식 평가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과 마찬가지로 7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에서도 국어 지식, 문법과 관계있는 문항이 많다. 이들 문항은 ‘한글 맞춤법 표기 이해’, ‘국어의 어문 규범 이해’, ‘국어의 표준 발음법 이해’, ‘국어

의 품사 구분 이해', '국어의 어법 이해' 등 대부분이 문법 지식과 관계있는 문항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법 지식 평가 문항들이 '공무원의 문서 다루기'와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한글 맞춤법이나 어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하지만 이들 지식이 업무와 무관한 개별적인 문법 지식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적인 업무와 관련되도록 공문서를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해야 의미가 있다.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품사'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보다 문서 안에서 각 요소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낱말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 더 타당하다.

3.2.3. 문학 감상 능력 평가

황조가를 읽고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항이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고전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7급 공무원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국어 시험이 고전문학의 감상 능력까지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태준의 '복덕방'의 일부분을 읽고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과 이상의 '권태'의 일부분을 읽고 글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항도 있는데, 이 또한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평가하고자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3.2.4. 읽기 능력 평가

전통적으로 읽기 능력은 국어 시험 영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듣기 평가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읽기 능력 평가 문항이 학교 국어 시험에서나 대학 입시 국어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7급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에는 읽기 능력 평가

문항보다 국어 지식, 문법, 문학 감상 능력 평가 문항이 더 많다. 7급의 경우에도 읽기 능력 평가 문항은 6문항에 불과하다. 또 그중에는 단어의 정확한 한자 표기에 대한 평가 문항도 있다.

7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에서는 ‘글의 특징 파악하기’, ‘내용 추론하기’, ‘내용 파악하기’, ‘글의 전개 순서 파악하기’ 등과 같은 읽기 평가 문항을 출제하였다. 지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 전달의 글이 2편, 정서 표현의 글이 1편, 전통문화에 관한 설득의 글이 1편 등이다. 이들 지문을 통해 읽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3.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언어 논리’이다. 2009년도에 시행된 행정 고등고시 언어 논리 문항을 살펴보면, 고차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 이는 7급,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과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국어 지식, 문법, 문학 감상 능력 평가 문항도 없다. 대부분의 문항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읽기 능력 평가 문항이며, 이 문항은 또한 고차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또한 문항 수도 7급, 9급 국어 시험에 비해 많다. 언어 논리 영역의 문항 수는 40문항으로 7급,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의 2배 수준이다. 그리고 언어 논리 시험의 지문의 수도 절대적으로 많다. 7급과 9급 공무원의 국어 시험의 지문수가 각 8개인 것에 비해 5급 공무원 채용 언어 논리 시험의 지문 수는 그보다 4배나 더 많은 38개나 된다. 지문의 길기도 훨씬 길다.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의 지문이 한두 문단으로 구성된 짧은 지문이었지만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인 언어 논리 시험의 지문은 문단의 수도 많다.

3.3.1. 고차적 사고력 평가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의 평가 내용을 보면 7, 9급 국어 시험과는 달리 고등 수준의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문항의 평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요약하기
- 내용의 적절성 판단하기와 논증의 타당성 판단하기
- 글의 논쟁점 추론하기
- 구절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 어휘의 의미 적용하기
- 중심 내용 파악하기(2문항)와 세부 내용 파악하기(4문항)
- 글쓰기 구상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 보고서의 서론 내용 파악한 뒤, 본론 내용 추론하기(읽기와 쓰기 통합적 활용 능력)
- 글의 내용으로부터 새로운 정보 추론하기(10문항)
- 글의 논리 파악하기
-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판단하기
- 글의 설명에 대한 적절성 판단하기(2문항)
- 단어의 중심 개념 파악하기
- 결정문 보고 필요한 정보 추론하기
- 단락을 내용의 흐름에 맞게 정리하기
- 가설과 실험의 관계 검증하기
- 내용 진술에 대한 참과 거짓 판단하기
- 논증의 구조 도식화하기
- 글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 판단하기
- 진술의 타당성 판단하기

위에 제시한 각 평가 요소들은 고차적인 사고 기능과 관련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추론하기 기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인 언어 논리 영역의 평가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국어 시험이다.

3.3.2. 실질적인 읽기 능력 평가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에서는 고차적인 읽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정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도 고차적인 읽기 능력 평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읽기 능력 평가가 5급 공무원의 업무와 부분적이긴 하지만 관련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지문을 보면, ‘보고서 구성 내용’, ‘시민사회단체 발기 선언문’, ‘연방통신위원회’, ‘유럽 연합’ 등 정부 고위 행정가가 수행하게 될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문이 있다. 이는 7급,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에 제시된 지문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이런 점을 보면,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인 언어 논리 시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읽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3.3. 비판적 사고력 평가

7,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이 문법 지식 중심의 국어 능력 평가라면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중시하는 국어 능력 평가라고 규정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력 평가 문항의 출제 의의는 글을 읽고 정보를 추출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집하여 독자인 수험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조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판적 사고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비판적 사고력은 정보에 대한 독자의 가치 판단이 동원되는

고차적인 사고 과정이다.

- 다음 글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에 보완할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이에 따라 각주를 달거나 보충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글에 나타난 식민 사관을 비판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은 한 변호사의 피고에 대한 변론이다. 이 변론을 가장 약화시킬 수 있는 진술은?

비판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와 함께 고차적인 사고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고 기능이다. 글을 읽고 논지나 주장, 의견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 확인, 정보 비교,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 기능이 동원된다. 물론 이러한 기능도 읽기 기능으로서의 이해 기능과 관련이 있다. 즉,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인 언어 논리 시험은 비판적인 사고 기능 평가이면서 고차적인 독해 기능 평가이다.

3.3.4. 국어 능력의 진정성 평가

진정한 의미의 국어 능력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인 ‘언어 논리’ 시험을 국어 능력과 견주어 규정하는 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국어 능력을 국어 지식이나 문법, 맞춤법, 표기법 등의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고차적인 사고력과 관련지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국어 능력의 진정성을 더 잘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항 수에 있어서도 국어 능력 평가의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 7,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의 경우에는 20문항이라는 제한된 문항으로 국어 능

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하다. 즉 국어 능력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언어 논리 시험이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진정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4. 나오며

7, 9급 공무원의 국어 시험은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보다는 국어 지식, 문법, 문학 감상 등을 통해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 검증받는 국어 능력이 실제 공무원의 직무와 그 관련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7,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에서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맞춤법이나 표준어, 한자어 등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평가 내용으로 설정하여 국어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평가 내용은 공무원에게 필요한 국어 능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어 능력이다. 7, 9급 공무원의 업무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행위로 이루어지므로 이들 국어 능력과 관련 있는 문항들이 더 요구된다.

반면,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인 언어 논리 시험은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7,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과는 크게 다르다. 한자어 지식, 맞춤법, 국어학 지식, 문학 작품 감상 등의 항목은 전혀 없다. 40문항 모두 고차적인 사고력과 관련 있는 문항들이다. 담당 업무에 차이가 있지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이렇게 편차가 크게 바라보는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고려해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국어 시험을 실시해

야 한다. 그리고 다음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어 능력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 능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밀하게 관찰,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국어 능력으로도 공무원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면 공무원 채용 국어 능력 시험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는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이 보편적인 국어 능력 평가에 기반을 두면서도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특수한 국어 사용 맥락을 평가 장면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인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국어 능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특수한 맥락과 연계되어 평가되어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국어 능력 평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7, 9급 공무원이 문법, 한자, 국어학,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갖추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7, 9급 공무원도 업무 기획을 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 수행에는 어떠한 국어 능력이 요구되는지를 장기간의 실제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둘째, 전통적인 국어 평가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과는 달리 7, 9급 공무원 시험은 전형적인 국어 지식 평가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문법 지식이나 한자 지식, 국어학 지식 평가 문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 중심의 국어 평가관은 국어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에 지식을 강조하는 관점인데 최근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전략,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인 언어 논리 시험이 지식보다는 언어 및 사고 기능, 독해 전략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7,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에도 기능과 전략을 평가하는 문항이 존재하지만 극소수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국어 시험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상에 부합하는 평가관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공무원 업무라는 맥락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KBS한국어능력시험’이나 ‘국어능력인증시험’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이 공무원에게 특별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면 이들 국어 능력 평가 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을 존치하는 이유는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을 통해 공무원의 국어 능력을 임용 전에 미리 대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미래 공무원 대비 국어 능력을 사전에 준비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을 통해 준비하고 있는 국어 능력이 공무원의 실제 업무와 괴리되어 있다면 정부나 공무원 자신에게도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효율성 없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인 언어 논리 시험은 업무와 관련 있는 맥락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7,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에는 공무원 업무와 관련 있는 상황 맥락이 전무하다. 물론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의 경우에도 보고서 작성하기와 같은 주요 업무와 관련 있는 쓰기 과정과 관련 있는 쓰기 전략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7,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의 문항 수가 5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인 언어 논리 평가에 비해 적다는 것은 이들 평가가 국어 능력의 실체성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항 수를 늘린다고 이 시험이 공무원의 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업무 상황 맥락이 잘 반영된 평가 장면을 바탕으로 국어 능력 시험 문항을 개발해야 공무원 국어 시험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4),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개선 방안 연구’, 성진문화사.
- 국립국어원(2009), ‘한국인의 언어활동 조사 연구’, 교대문화사.
- 이천희(2005), ‘국어 능력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 118.
- 이형래(2006), ‘공무원의 직업 문식성 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행정안전부(2009),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를 위한 정부부처 소개’,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 Barrett, T.,(1976), ‘Taxonomy of reading comprehension’, In R. Smith & T. Barrett(eds.), Teaching Reading in the Middle Grades’, Readin Mass: Addison-Wesley.
- Robert J. Marzano, Ronald S.Brandit, Carolyn Sue Hughes, Beau Fly Jones, Barbara Z.Presseisen, Stuart C. Rankin, Charles Suhor,(1988), *Dimensions of Thinking: A Framework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누리집: <http://www.gosi.go.kr/>